

추모 condolence

姜明求 전임회장 별세

지난 5월 3일, 향년 84세로

우리 협회 제4대 회장을 역임한 강명구 전임회장이 지난 5월 3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 강명구 전임회장은 평생동안 건축계에 몸담아 오면서 건축인 후학양성과 권익신장 등 건축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건축사이다. 또한 누구보다 건축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고인은 건축이론에 바탕을 둔 작품활동을 통해 건축의 질적향상은 물론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여러 업적들을 남겼다. 한편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많은 후학과 건축계 관련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 했다. 시신은 경기도 파주 낙원공원에 안장됐다.

◇ 주요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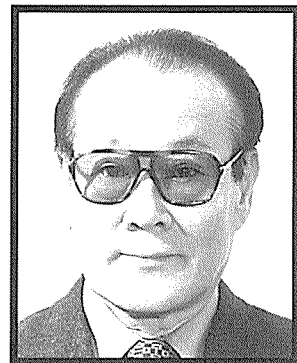
- 1917. 2. 22. 서울 출생
- 1940 일본 와세다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 1955~1969 홍익대 건축과 교수
- 1959 국회의사당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
- 1965 강명구건축사사무소 개설
- 1968~1969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 1969~1970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971~1981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
- 1956~1970 대한민국전람회건축부문심의위원
- 1972 문공부장관 표창

1982~198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시설전문위원, 서울지하철공사 자문위원,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 전시자문위원, 제3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위원장

1984~199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대 자영

◇ 주요작품

한국전력공사 별관 / 주택공사 마포아파트 / 부산지방해무청사 / 부산지방검찰청 / 신당동 주택 / 서울대 농대 기숙사·대식당 / 종로2가 계영빌딩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故 강명구 전임회장

故 강명구 선생의 영전에 부처

삼가故 강명구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애척(哀戚)의 정성(精誠)을 영전에 드립니다. 인간 일대의 공과(功過)는 관을 덮고 서야 이야기된다 했거늘 돌이켜 보건데 선생의 일생은 건축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생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을 오로지 건축외길을 걸으셨습니다. 일찍이 교육계에 투신하시어 많은 대학의 강단에 계셨으며, 특히 홍익대학 건축과에 10년 이상 재직하시면서 이 나라 태동기 건축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수학 이후 명동에 사무소를 개설하시고 건축설계와 더불어 인테리어디자인을 하시면서 그 이론서인 의장론을 국내 최초로 저술하시므로써 실내건축의 태두가 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도 곡선보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별관, 이승만박사 제주별장, 목조트러스를 이용한 황명순고아원 등은 주옥같은 작품들입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본협회 회장직 등을 역임하시면서 건축계의 원로로서 오늘의 본협회가 있기까지 개척자적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가협회부회장, 예총 등 여러 단체에 관여하시면서 초창기 한국건축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여명기에 태어나서 암흑과 수난의 시대를 거쳐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선생의 일생은 한국 근대건축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며,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몸바쳐 오신 반세기 동안의 그 업적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선생이시여!

선생을 존경해 온 많은 그리움들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혹된 우리들의 사정(私情)일 뿐입니다. 군자의 죽음은 휴식이요, 소인의 죽음은 굴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야말로 천명(天命)을 다하시고 이제 휴식에 들으셨으니 선생의 휴식 위에 찬연한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재천의 영령들도 선생의 가심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만곡(萬斛)의 눈물로써 선생을 장송(葬送)하는 가권(家眷)과 애도(哀悼)의 지정(至情)을 굽어살피고, 이승의 짧은 역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빛나는 생애였음을 회상하고 명목(瞑目)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선생의 육신은 속세에서 타계하셨습니다만, 선생의 영혼과 정신은 우리 건축사 모두의 가슴과 우리 나라 건축계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동장(同掌)하여 비나니 선생의 휴식이여 길이 평안하소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의구